

‘숨 고르기’ KIA 최형우 ‘반전의 5월’ 이끈다

김도영 지명타자 맡으며 연일 외야 수비로 ‘바쁜 나날들’
이범호 감독 “부상 오기 전 쉬게 해야” 선발 라인업 제외
훈련 소화하고 배팅볼 투수 자처…후배들 타격훈련 도와



‘타고난’ 최형우가 숨을 고르면서 7번째 우승반지를 위해 달린다.

KIA 타이거즈의 최고참 최형우가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가 열린 29일 휴가를 받았다.

최형우는 라인업에서 제외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최형우는 이날 경기 전까지 26경기에 나와 108타석을 소화했다. 주말에는 외야도 부지런히 누볐다.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해 지명타자로 나서게 되자 최형우가 글러브를 끼고 외야로 나가 이를 연속 수비를 소화했다.

이범호 감독은 “도영이 지명타자를 치면서 형우가 계속 수비를 나갔다. 많은 경기를 하면서 지명타자도 수비도 나가주고 있다. 몇 경기씩은 빼주는 게 큰 부상이 오기 전에 중요하다. 신경을 쓰게 된다”며 “쉬어줄 타이밍을 고민했다. (나)성범이도 쉬어

줄 타이밍 고민했다. 고민하면서 지명타자도 시키고 쉬어주는 했는데 이렇게 다치게 되니까, 형우도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경기씩 빼주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레야 체력적으로나 본인이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최형우의 휴식에 관해 설명했다.

KIA는 개막과 함께 야수진의 줄부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김도영이 돌아오자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지는 등 ‘타선 완전체’ 구성에 또 실패하면서 ‘부상 관리’는 이범호 감독에게 중요한 숙제가 됐다.

또 이날 NC 선발로 나선 로건 앨런이 좌타자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만큼 체력 관리와 경기 전략에 맞춰 최형우에게 휴식을 선물했다.

최형우에게도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최형우는 “내심 쉬고는 싶었다”며 “감독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이다. 도영이 때문에 3일 내내 내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러셨을 것이다. 나는 고맙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휴식을 받았지만 최형우가 마냥 쉰 것은 아니다. 이날 최형우는 훈련 시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다. “오늘 경기를 쉬니까”라면서 최형우는 배팅볼 투수를 자처해, 후배들의 타격훈련을 도왔다.

매 시즌 최형우는 ‘후배들과의 가을잔치’를 목표로 이야기해 왔다. 올 시즌에도 최형우의 목표는 같다. 하지만 후배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팀이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형우는 부상 없는, 꾸준함의 대명사다. 1루에서 수비수와 충돌해 쇄골 분쇄 골절을 당했던 게 최형우에게는 가장 큰 부상이었다. 이것도 외적인 요소로 인한 부상이었다.

“어디 부러지지 않는 이상 된다”며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최형우지만 ‘부상’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노하우는 없다.

최형우는 “딱히 관리하는 것은 없다. 대신 남보다 참을성이 강하다. 부러지지 않으면 다른 선수들보다 참으면서 시합을 하는 것 같다”며 “열심히 안 뛰는 것도 아니고 대중 뛰는 것도 아닌데 타고난 부분인 것 같아서 해줄 말이 없다”고 웃었다.

‘정신력’이 조금은 다른 비결이다. 참을성을 가지고 경기에 나서는 그는 스트레스받지 않고 즐기려고 한다.

최형우는 “후배들에게, 언론에 뭐가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해줄 말이 없다. 후배들에게 정신적인 부분은 이야기해 줘도 몸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 오타니처럼 루틴을 지키는 것도 없다. 경기 들어가면 그냥 막 한다”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편하게. 그게 건강에도 좋고 플레이하는 것도 좋다”고 144경기 대장정을 건강하게 보내는 힘을 이야기했다.

장기 레이스를 위해 체력 안배를 한 최형우는 기대감으로 5월을 보내보고 있다.

최형우는 “LG라는 강팀을 이겨서 나도 그렇고 애들도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타자들 밸런스, 꾸준함 이런 것만 맞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다 잘 치고, 다 못 치고 이런 게 심했는데 자신감을 찾았을 것이다”고 반전의 5월을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최고참 최형우가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가 열린 29일 훈련 중 타자들에게 배팅볼을 던져주고 있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4회말 2루타를 친 뒤 숨고르기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4경기 결장 손흥민, 복귀



지난 10일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경기 전 워밍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 감독, 2일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앞두고 “아슬아슬”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을 앞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발 부상으로 4경기 연속 결장한 ‘캡틴’ 손흥민(32)의 복귀 가능성에 여전히 불음표를 달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8일 리버풀과 2024-2025 EPL 34라운드 원정에서 1-5로 대패한 뒤 영국 BBC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1차전에 나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첫 경기는 어렵더라도 두 번째 경기에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올버햄프턴과 EPL 32라운드 토트넘의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버햄프턴전이 끝난 뒤 “손흥민이 발을 살짝 찔었다. 조심하려고 한다”며 처음 부상 소식을 알렸다.

손흥민은 이후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했지만, 이후 선수 보호 차원에서 프랑크푸르트(독일)와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8강 2차전 원정에서 빠졌다.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노팅엄과 EPL 33라운드 토트넘의 출전 가능성을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했다.

이번 시즌 공식전 43경기를 뛰며 11골 12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이 결장한 최근 4경기에서 토트넘은 1승 3패로 부진에 허덕이며 ‘캡틴’의 공백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부상 상황 업데이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홋스퍼 HQ’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결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그의 정확한 부상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격정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EPL 3경기+UEL 1경기)에 연속 결장했다.

토트넘은 오는 5월 2일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파리그 4강 1차전마저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을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했다.

이번 시즌 공식전 43경기를 뛰며 11골 12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이 결장한 최근 4경기에서 토트넘은 1승 3패로 부진에 허덕이며 ‘캡틴’의 공백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부상 상황 업데이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홋스퍼 HQ’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결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그의 정확한 부상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격정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전남 ‘극장골’ 정지용·‘거미손’ 최봉진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정지용(사진)과 최봉진이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K리그2 9라운드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합작한 정지용과 최봉진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지용은 0-0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장식했다.

왼쪽에서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돌진한 그는 골키퍼 손정현을 마주하고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이었다.

전남은 이 골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2위(5승 3무 1패·승점 18)에 자리했다.

곧게 달려있던 상대의 골대를 뚫은 정지용과 함께 8개의 유효슈팅을 모두 막아낸 골키퍼 최봉진이 베스트11이 됐다. 이날 김포는 16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전남을 공략했다. 이 중 8개는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모두 최봉진을 넘지 못했다.

한편 9라운드 MVP는 부산아이파크 페신의 차지가 됐다.

페신은 27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화성



9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 성남FC의 경기가 됐다.

이날 두 팀은 5골을 합작하면서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1-0에서 역전을 허용했던 수원은 후반 35분 일류첸코의 페널티킥 골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린 뒤, 후반 45분 나온 이규성의 골로 3-2 승리를 거뒀다.

베스트팀은 충남아산FC이다. 충남아산은 25일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한교원의 멀티골과 손준호의 썸머골로 3-0, 완승을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AFC U-20 여자 아시안컵 예선 H조

방글라데시·라오스 등과 대결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이 방글라데시, 라오스, 동티모르와 내년 4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여자 아시안컵 본선 출전권을 놓고 다툰다.

우리나라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하우스에서 열린 2026 AFC U-20 여자 아시안컵 예선 조 추첨에서 방글라데시, 라오스, 동티모르와 H조에 묶였다.

33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예선은 오는 8월 2~10일 개최된다.

8개 조(4개 팀씩 7개 조, 5개 팀 1개 조)로 나눠 조별로 한 나라에 모여 풀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8개 팀과 2위 중 성적이 좋은 3개 팀, 그리

고 개최국 태국까지 총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은 내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열린다. H조 예선 모든 경기는 라오스에서 펼쳐진다.

우리나라는 8월 6일 동티모르, 8일 라오스, 10일 방글라데시와 차례로 맞붙는다. 경기 시간과 장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02년 시작해 2년 주기로 열리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은 최근인 2024년 대회까지 8개국 체제로 개최됐으나 내년 대회부터 참가국이 12개로 확대됐다.

한국은 2004년과 2013년 중국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